

인사이드

참회문 발표한 서옹스님

“길은 한가지입니다 탐욕·명리 버리고 무아자비로 화합”



않았다.

“이번 일로 부처님 법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가슴 속에 큰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다른 종교로 바꾸려 하고, 길이나 버스에서 스님들에게 욕도 한다면서요. 부처님 제자라고 믿었던 스님들이 그렇게들 싸우니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툼이 있다고 해서 부처님의 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인간은 모두 악하지요. 스님들의 싸움에 실망했다고 해서 부처님의 법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부처님의 법은 위기에 처한 인류를 이끌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눈 앞의 분쟁만으로 등 돌리기 보다는 큰 마음으로 멀리 내다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지켜내기 위한 정진을 하세요. IMF로 경제가 어려워졌지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모두 노력하지 않습니까?”

또 서옹스님은 20세기를 마감하는 1999년 새해를 맞아 불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길은 한가지입니다. 탐욕과 명리를 버리고 무아자비(無我慈悲)의 정법(正法)으로 참선해야 합니다. 스님의 본분은 어떤 일보다 수행이 우선해야 하며, 재가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정진해야 하는 것이지요.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도와가며 화합할 수 있는 길을 냉정하게 성찰하세요. 인간관계를 무연(無緣)의 동체대비(同體大悲)로 인식하여 서로 존중하고 봉사한다면 질서있고 아름다운 모습이 저절로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을 따라 나아가는 바른 길입니다.”

김정은 기자(jekim@buddhapia.com)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종교로, 불법(佛法)을 갖고 있는 불교가 왜 이런 다툼을 벌이고 있는지 안타가울 따름이지요. 모두 욕망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고 인간주의의 근원인 ‘참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서옹스님(87)은 12월 28일 조계종 분규와 관련, 종단 어른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파 그동안 계속 방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며 참회문을 발표하고 가슴 아픈 심정을 토로했다.

12월 10일부터 5일간 대만불교를 돌아보고 귀국한 서옹스님은 조계종 분규로 인해 백양사로 내려가려던 계획을 미루고 서울 상도동 백운암에 머물고 있다.

“어떠한 명리(名利)도 부처님의 법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고, 서로 존경하고 용서하며 불교 근본정신인 자비화합(慈悲和合)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질서에 바탕하여 서로 조급씩 양보했다면 지금 같은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인생의 고(苦)는 모두 식(識)을 연해서 생기(生起)합니다. 선(禪)에서는 식을 없애고 무의식(아뢰야식)까지 없애 무한히 벗어나 무한히 현상(現成)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정법 그대로지요. 의견이 서로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자비화합의 바탕에서 서로 협조하는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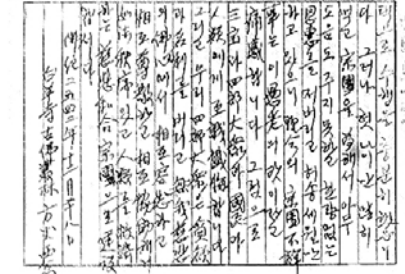
조계종 분규로 인한 노스님의 상심이 컸던 탓일까. 지난 해 8월 백양사 무차선회 때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지만 오히려 이번 사태로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은 불자들을 향한 간절한 당부도 잊지

서옹스님 '조계종분규 참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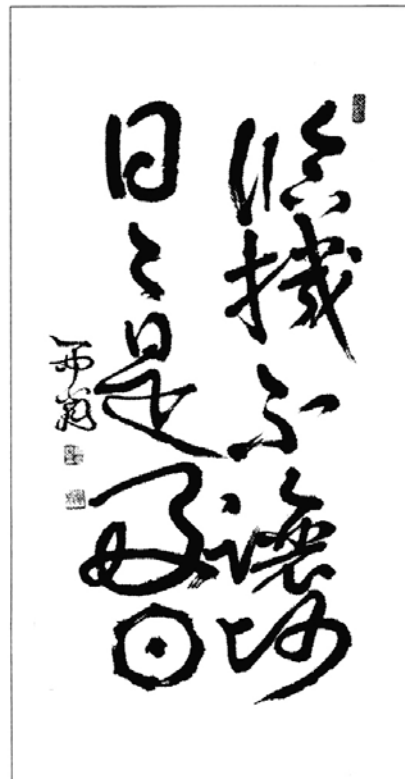
우리 조계종은 무아자비(無我慈悲)의 정법(正法)을 이어 국민과 인류를 자비화합의 바탕에서 구제하는 불교입니다. 그러나 현금(現金)에는 우리 종도(宗徒)들이 훌륭한 전통을 망각하고 탐욕과 명리(名利)에 이끌려 종도를 가리 폭력난투(暴力亂鬪)하고 있으니 불조(佛祖)의 정신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인류의 화합과 행복에 크게 해독(害毒)을 끼치는 행위라고 믿습니다. 어찌 통곡과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반성하면 종단의 어리석은 이 늙은 서옹은 어려서는 부모와 집안 어른들의 사랑으로 잘 자라서 학문도 닦았고, 출가해서는 스승과 도반 덕택으로 수행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러나 헛나이만 많이 먹어 종단을 위해서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고, 한량없는 은혜를 저버리고 허송세월만 하고 있으니 지금의 종단 불상사는 이 우노(愚老)의 탓이라고 통감합니다. 그러므로 삼보(三寶)와 사부대중과 국민과 인류에게 지성참회(至誠懺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부대중은 탐욕과 명리를 버리고 무아자비의 불심(佛心)에서 상호 용서하고 상호 존경하고, 상호 협력하여 여법질서(如法秩序)로써 인류를 구제하는 자비화합 종단을 건설합니다.

불기2542년 12월 28일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 서옹



조계종 원로 서옹스님은 조계종 분규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 '참회문'을 직접 써서 발표했다.



서옹스님 신년 휘호

臨機不讓師 (임기불양사)
日日是好日 (일일시호일)

참선에 입하는 제자가 스승에게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참선은 걸림없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 참선을 통해 자유자재하게 살면 내일이 즐겁다.

새아침 칼럼



고 은
(시인·본지 논설고문)

새해라고? 새해이므로 무슨 가슴팍 포근한 덕담이나 해보라고? 개수작이다. 이재야 조주의 개가 뭔가 짐작하겠다. 새해도 조주도 개수작이다.

조계사는 한국의 수처다. 세계 만방에 생중계된 조계사 난동은 한반도의 북쪽에서는 2백만 이상의 남녀노소가 굶어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으며 그 남쪽에서는 실업자 2백만명이 살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추운 거리를 떠돌고 있는 참상에 대해서 한국이야말로 저주의 땅이 아닌가 여기게 하고도 남았다.

조계사는 한국불교 1600년의 수처다. 고대 불교의 타락이 없었던 건 아니다. 조선불교의 길고 긴 비겁이 없었던 건 아니다. 일제식민지시대 친일불교의 꼬라지가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런 중에도 그 한쪽에는 보우와 보조가 있었고 서산·사백이 있었다. 만해·만공이 있었던 것이다. 그들과 함께 진승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세상의 실정법이 차라리 모호해서 더 가혹한 처단인 없는 것에 나는 불만이다. 그런 '법난' 열변이라도 있어서 그 난동의 탐욕 속에 가득채워진 무지와 파렴치를 조급이라도 탐감하기를 바라고 있다.

오늘의 한국불교는 뺨 밖에 없다. 대승 불교라고 자화자찬 하지만 가장 졸렬한 소승불교이다. 진정한 옛 대승불교는 새로운 진리 실현을 위한 젊은 세력과 세속의 양심세력이 평등하게 이룬 변혁의 불교였다. 거기에는 내가 제일이다 라는 아상(我相)이 용납되지 않고 나에게 예배하라는 장로주의도 없다.

그런데 오늘의 불교판은 겉치레, 권위의 소송일 뿐이다. 전혀 정신의 계행 없는 수작을 대승으로 장식한 것이다. 이런 거짓된 대승은 망승(亡乘)이다.

참다운 뜻으로는 상가(승가)는 불교 3보 중의 하나인 승보가 승려만을 가리키

금강경을 파문었다

“ 거짓된 대승엔 한가닥 연민조차 아까운 노릇이다 : 한국불교에는 가리왕이 필요하다 ”

(眞僧)이 있었다. 1950년대 비구승단의 조계종 이래 간담 없는 종권싸움은 이제 그 절정에 이르러 조계사 담 배락에 구멍을 내어 신임자가 들어가는 그 누추한 광경은 차라리 동화처럼 상상스럽기까지 하다. 과연 대한불교 조계종은 아수라종이다!

나는 80년대초 감옥 안에서 전두환정권이 조계종 집행부나 실력자들을 군화발로 들이닥쳐 들어가 마구 두들겨 맨 소식을 듣고 군부독재는 반드시 그 행패만으로도 시대의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데 지금은 그런 일이 몇번쯤 더 있어 야 제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한 오늘의 종단에 대해서 한 가닥 연민조차 아까운 노릇이다. 걸핏하면 '법난' '법난...'이라고

지 않고 불법을 따르는 사회 전체를 뜻한다는 사실이다. 아니 이 세상의 3세가 승가 아닌데가 없는 것이다. 그런 것도 승단의 의미로 만들어 저희들에게 합장 배례하라. 저희들에게 바쳐라. 저희들 말이 라면 휴으로 매주를 쓴다 하더라도 만고의 정법(正法)이라고 믿어라 하고 있다.

중정이라는 것도 중무원장이라는 것도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왜 몰라. 그것을 모르고 불교를 팔고 있는 죄업이 무간지옥도 아깝다는 것을 왜 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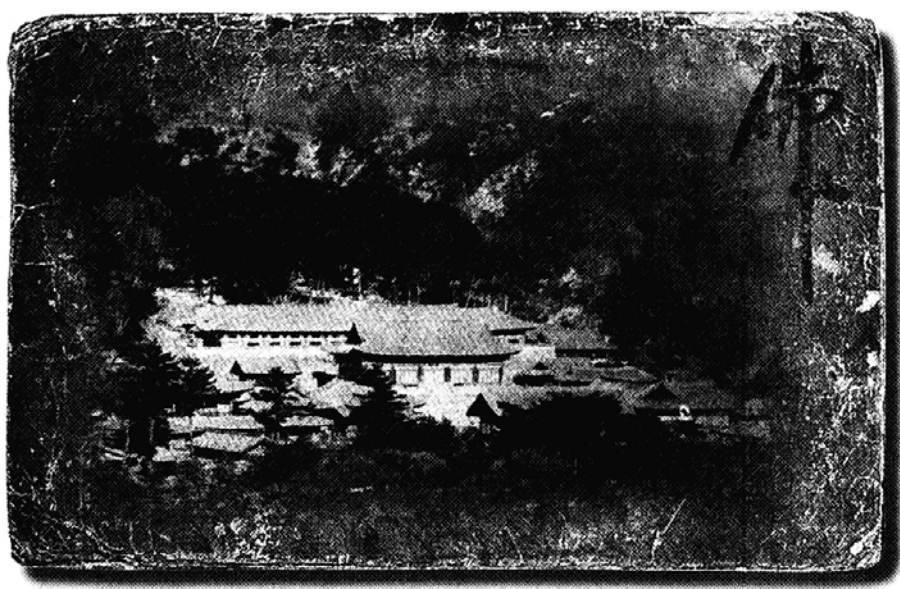
조계사 지난 해 12월의 죄나러한 행태는 한국불교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지금 산중에서 새 소리로 들기를 마다하고 삼매에 든 선방 수좌도 있으리라. 지금 대장경 속의 오묘한 요체에 깊이 들어가 있는 교학의 촛불도 있으리라. 지금 염불이 염불선에 들어 웬만한 돈오돈수의 간화보다 점수의 착실한 수행보다 지극한 속도 있으리라.

허나 초파일 종정법어나 여러 방장, 조실의 해제법어도 도무지 참된 소리로 들리지 않는 이 허상을 무엇으로 돌려보야 하는가.

나는 오늘 아침 <금강경> 한 권을 땅에 파묻는다. 조계종 소의경전(所依經典)이다. 그 경 속의, 네가지 상(相)이 진리가 아니라는 말도 전혀 개수작 같아서였다. 한국불교에는 가리왕이 필요하다. 한국불교에는 세상에 의한 신락통치와 존엄한 심판의 특별관리가 요구된다. 아 조계사!

佛紀 2543年

謹賀新年



시작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희망찬 21세기!
2천만 불자가 하나되어
화합의 새해를 열어 갑시다

大韓佛教曹溪宗
元老會議 議長 慧庵
總務院長 杲山